2024. 5. 23.(목) 조간용
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22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보도자료

서울아리수본부 급수부

담당부서 :

서울물연구원 수도연구부

급 수 부 장	백 광 인	3146-1401
급수운영과장	이 상 환	3146-1460
수도연구부장	안 재 찬	3146-1810
배급수연구과장	김 완 섭	3146-1830
관련 누리집	https://arisu.seoul.go.kr/	

사진없음 □ 사진있음 ▣ 쪽수 : 4쪽

서울시, '안심 아리수' 기반 조성…수도관 끝 지역까지 스마트한 수질관리

- '26년까지 76억 원 투입, 정체수 자동 배출 장치 운영…스마트 수질관리 시스템 강화
- 수도관 끝 지역, 공사장 주변 등 60개소 중점 관리로 수질 사각지대 해소
- 정체수 20~50일마다 수동 배출 → 실시간 수질에 따라 자동 배출로 개선
- 효율적인 수질 측정 및 자동 배출장치 운영 시스템 특허 등록, 운영 매뉴얼 마련

□ 서울시가 수질에 따라 정체수를 자동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도관 끝 지역, 공사장 주변 등 수질 취약 지역 해소에 나선다.

□ 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43억 원을 투입해 서울시내 수질 취약 지역 60개소를 선정해 올해부터 매년 20개소씩 정체수 자동 배출장치 설치를 추진한다.

□ 정체수 자동 배출장치는 24시간 수질을 측정하고 만약 수질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정체수를 배출한다.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방문해 수질을 확인하고 20~50일에 한 번꼴로 정체수를 배출했었다.

○ 시는 2021년에 정체수 자동 배출장치 2개소를 시범 설치해 운영한 결과 기존 인력을 통한 운영보다 수질 개선 효과가 큰 것을 확인했다.

□ **한편, 시는 수도관 끝 지역의 더 정확한 수질관리와 배출수 조절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정체수 자동 배출장치의 수질 측정 위치 등 운영 방법에 대한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. 또한, 지난 3월 정체수 자동 배출장치 운영매뉴얼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기도 했다.**

○ 시는 올해부터 개선된 정체수 자동 배출장치 설치와 운영 매뉴얼을 현장에 본격 적용한다. 주요 내용은 관로의 밸브를 갑자기 닫거나 펌프를 정지하는 등 유속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(水) 충격 방지를 위해 자동 배출장치의 배출수 밸브가 열리는 비율과 속도, 배출수 양 제어에 관한 것이다.

○ 이를 통해 수도관 내부의 유속 변동에 따라 이물질량이 늘어나는 2차 문제를 해결하고, 안정적인 장치 운영을 통해 최소의 배출수로 깨끗한 수질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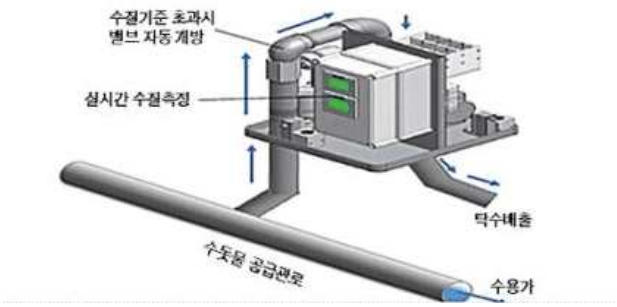
□ **시는 이와 함께 올해 33억 원을 투입해 수도관 끝 지역과 공사장 주변 아파트에 고정형 및 이동형 수질측정기 45대를 추가 설치한다. 이동식 수질측정기는 상수도 공사가 진행되는 지역 주변의 학교나 아파트 등 현장에 유연하게 설치가 가능해 실시간 수질 감시를 통해 선제적으로 수질사고를 예방한다. 또한, 올해는 사무실을 벗어나 수질 자동감시시스템을 모바일까지 확장해 장소제약 없이 신속하고 정확한 수질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.**

○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시 전역에 수질측정기 527대를 설치해 24시간 수질을 감시하고 있으며,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'아리수 맵(Map)'과 애플리케이션 '모바일 아리수'를 통해 우리 동네 수질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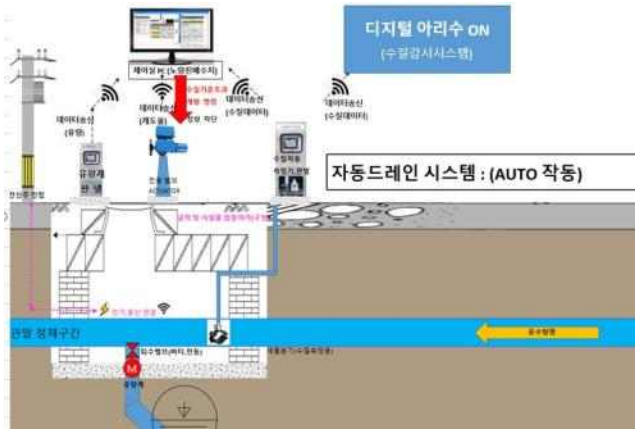
□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“세계 최고 수준의 수돗물 고품질 아리수를 관로 말단 지역까지 맑은 물 그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.”라면서 “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수질관리를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아리수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붙임 : 수질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정체수 자동배출장치 개념도 1부.

붙임 **수질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정체수 자동배출장치 개념도**



자동배출장치 상세도



자동배출장치 운영 개요도